



Web Contents



2024년 04월 23일 21시 28분

목포 꿈다락 미술체험반 수업 (이보영)

2015.10.11 조회수 72 등록자 이보영

매주 토요일 꿈다락 수업날이 되면,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수업이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설레이며 출발하는 데...

미술 감상반 수업날이 되면 ... 오늘은 어떤 화가를 만나 그의 생을 조망하며, 또 어떤 작품들과 조우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내가 설레이며 출발한다.

발레반 연극반에서는 수송해주고 챙겨주는 매니저역할, 부모입장에서 수업을 참관하는 게 전부였던 엄마의 역할이었지만, 미술감상반은 수업을 받는 학생입장이 되니 더욱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동참할 수 있어 행복하다.

치킨 먹기와 연애로 비유해 쉽고 친근감있게 미술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니, 막연리 그림을 바라만 보며... 멋지다~대단하다 만 연발했던 작품 감상수준에서 벗어나, 전체적인 색깔부터 구도부터 보고 더 세밀하게 관찰하게 되는 치킨 맛보듯 그림의 맛을 볼 수 있는 기본을 알게 된 것부터가 큰 행운이다..

4주차 수업에서는

서양미술사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인상파 화가 3인을 공부했는데 ...

확장시절 인상파 화가 3인은 세잔, 고흐, 고갱이라고 암기한 게 전부였지 부끄럽게도 대체 그 이상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.

하지만 꿈다락 수업을 통해 그들의 생애와 작품세계, 영향받은 화풍, 그림기법, 그림 속에 들어있는 내면의 표현 등을 다 시 보고 바라보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미술에 빠져들게 된다.

수업이 끝난 뒤 바로 도서관으로 직행!

세잔 고흐 고갱의 책을 빌렸다. 물론 어린이 도서관 아이들 서적으로

내 수준에 딱 맞는 책이다! 아이들과 함께 보면서 배울 수 있는~

Impression 인상파 인상주의

인상주의의 선구자는 모네였고, 관념에 매여있지 않은 그림, 내 눈에 빛에 의해 포착된 그림을 그린다.

후에 피카소의 입체파에 영향을 준 세잔은 모든 물체를 입방체(원기둥 삼각뿔 원뿔)로 보았고 질서 규칙 구도를 중요시 하지 않아 자유롭게 표현된다.

현대미술의 아버지로 불리는 세잔의 그림 중 정물화는 대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하고 원근법을 무시해 마치 과일 이 쏟아질 것 같은 표현이 재미있다.

그림을 제대로 배운적이 없었다는 고갱~

고갱의 그림에서는 색의 힘이 느껴져서 더 끌린다.

개인적으로 타히티에서 그린 그림들~ 원색적이고 원시적인 그림들~ 마음에 든다.

그 유명한 고흐다~

그림에 영혼을 쏟아부은 고흐~

고흐의 그림은 별을 회오리처럼 묘사한 별이 빛나는 밤과 강렬한 색감의 해바라기만 알고 있었는데

다양하고 많은 고흐의 작품을 보면서 그의 그림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.

900여점의 다작을 남겼다.

그리고 고흐가 에펠탑을 설계했다는 놀라운 사실!

귀를 자르고 그린 자화상등 광기어리고 도발적인 그림을 보니 천재화가의 경이로움과 괜히 짠한 연민도 느껴진다.

*수업때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 오셔서 좋은 작품을 하나라도 더 보여주시려는 선생님의 열정과 배려심에 감사드립니다.

아이들이 지루하고 어려워할 까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넘기실때의 그 안타까운 표정~

기기 작중에 서투셔서 그림이 자꾸 넘어가버려 짜증부리실때는ㅋ 마치 소녀같이시고~^^

아이들이 제멋대로 그린 그림조차도 이론설명 들느라 받은 스트레스 맘껏 풀었네 하고 웃으시는 넉넉한 포용력도 아를 답습니다.

이제 2주 밖에 남지 않아 아쉽습니다.

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작품과 화가를 만날까요?

글쓰기

목록

이전글
표현주의의 ☒(정준)

다음글
목포 꿈다락 미술체험반 수업 (노건희)

MokPo - Si
Web Contents

